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1

2025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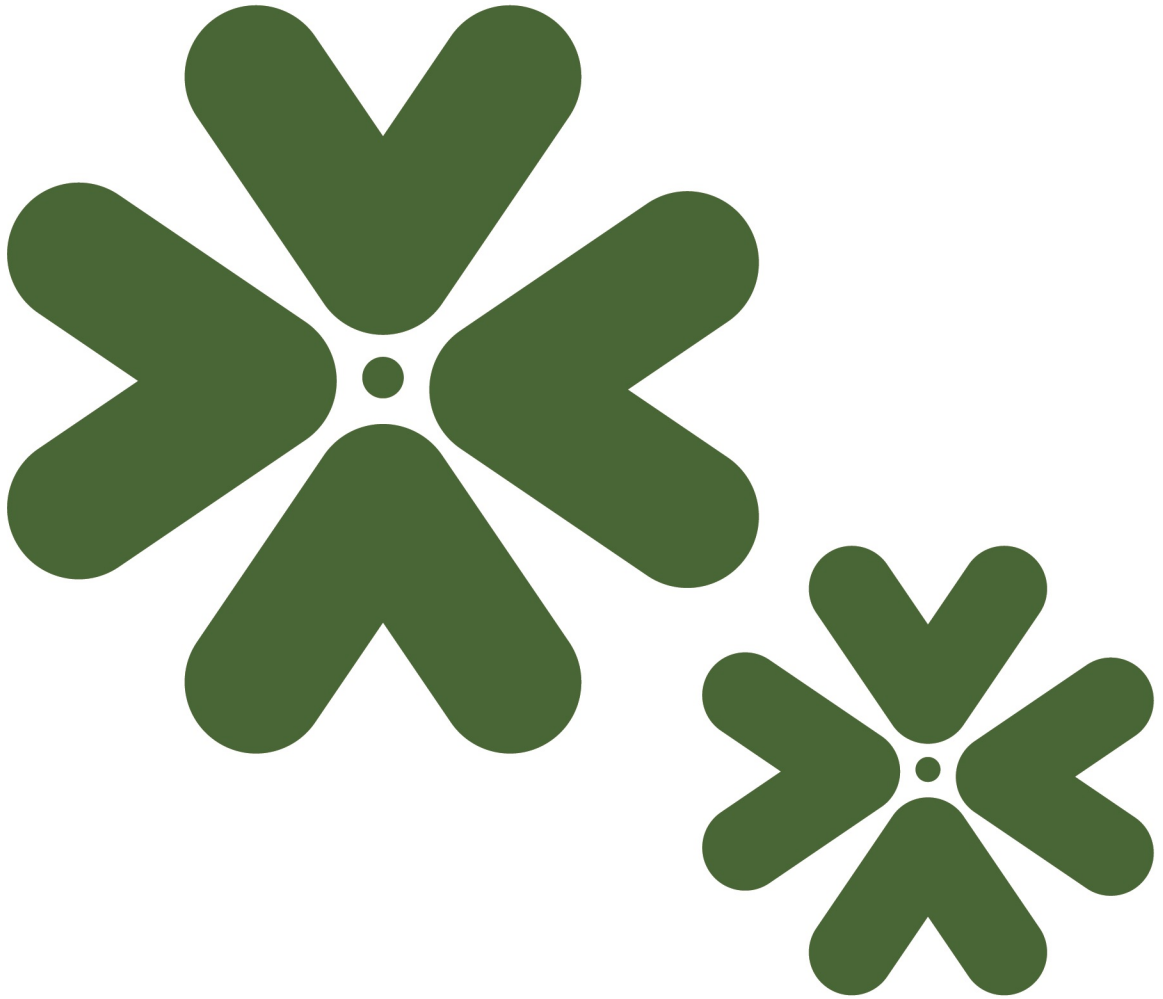
전라남도
완도 보길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1

2025년 1월



전라남도
완도 보길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CONTENTS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옷

섬 단어 사전

03 섬과 유배

PHOTO STORY

보길도의 숨결과 아름다움

04 『어부사시사』로 엮보는 보길도의 숨결과 아름다움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6 보길도 이야기의 시작, '청별' 버스정류장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08 1월부터 12월까지,
보길도에서 키워져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 막걸리 한 잔에, 섬 문화의 맛을 빛다!
: 박영수 님

14 섬에서 펼쳐지는 문학의 여정
: 김민환 님

16 섬의 숨결을 전하는 메신저, 보길도의 시간을 걷다
: 김건담 님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9 보길도 투어가이드 : 교통 및 숙박 정보

22 보길도의 자연과 윤선도의 철학 속으로

24 발길 닿는 순간,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 드려요

26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섬 단어 사전

섬과 유배

섬은 유배형을 집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여서 아주 오래전부터 유배지로 활용되었다. 해양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조선시대에는 절해고도(絶海孤島)라는 인식이 더 강해져 외부세계와 단절된 공간으로 많은 이들이 섬으로 유배되었다. 모든 섬에 유배인을 보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섬에 죄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다. 유배인이 머무는 장소 유배 생활에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동정을 살피는 책임도 섬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었기에 큰 부담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유배인은 대부분 학식이 높은 선비이거나 관료였다. 섬 주민들과 교류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섬 유배지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 유배인과 섬 주민들의 만남은 실제 그리 낭만적인 일이 아니었고, 생존의 문제가 달린 일이었다.

도움 주신 분

-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겸 소설가
 - 김건담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 박영수 보길도가 대표
 - 보길면사무소
- (윤선도유적팀) 강길동 팀장, 고웅비 주무관
(농수산팀) 김덕준 팀장

발행처

-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 에디터 김신연 (fun1015@korea.kr)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발간된 '시옷'이 궁금하다면?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어부사시사』로 엿보는 보길도의 숨결과 아름다움

#가을 >>

보길도의 가을은 마치 윤선도의 시 속에서 걸어 나온 풍경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단풍이 물든 숲은 섬의 산자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죠. 이런 풍경을 보고 윤선도가 감탄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는 이 모든 순간을 마음에 담아, 아름다운 시조 ‘어부사시사’로 표현했습니다.

가을 편의 한 구절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갈대 잎 꺾어 불고, 갈매기 떼를 놀래니 / 물가에 비친 단풍이 곱고도 고우다.” (어부사시사 가을 편, 제6수)

이 구절 속 갈대, 갈매기, 단풍이 어우러진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부가 갈대 잎을 불며 갈매기와 장난치는 모습은 평화로운 가을날의 여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가 마주했던 보길도의 가을 풍경 속에서, 우리도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풍경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가을 보길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세연지(洗然池)입니다. 윤선도가 이곳에 서서 바라보았던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맑은 연못에 비치고, 갈대숲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듭니다. 이 순간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그가 남긴 또 다른 구절이 떠오릅니다.

“바람에 단풍잎 떨어져 물결 위를 떠다니고, / 갈대 숲 사이로 햇살이 어른거리니 마음마저 고요하다.” (어부사시사 가을 편, 제8수)

단풍잎이 물결 위를 부드럽게 떠다니는 모습, 그리고 갈대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얼마나 고요하고 따뜻했을까요? 세연지의 물결은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거울처럼 섬의 풍경을 담아내며, 그 속에서 윤선도는 진정한 여유를 발견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연지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거예요.

가을이 끝나갈 무렵, 세연지는 서서히 겨울을 준비합니다. 갈대는 색을 잃고, 나무는 낙엽을 떨구며 차가운 계절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연이 들려주는 계절의 이야기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 세연지에 비친 그림 같은 가을 풍경



▲ 차가운 겨울 속, 선명한 붉은 빛의 동백꽃 *사진제공: 보길도가

#겨울 >>

가을이 떠난 자리에는 겨울의 고요한 풍경이 찾아옵니다. 윤선도가 노래했던 겨울의 보길도는 차갑지만, 그 속에서 잔잔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풍이 불어와 하얀 눈 날리니 / 물결은 얼어붙고 강산이 고요하네.” (어부사시사 겨울 편, 제4수)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섬과 얼어붙은 물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가 됩니다. 겨울은 자연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고르는 계절이죠. 윤선도는 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섬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겨울의 보길도는 동백꽃이 섬 곳곳을 붉게 물들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선명한 빛을 잃지 않는 동백꽃은 겨울 풍경 속에서 더욱 강렬한 생명력을 발산합니다. 세연지 주변에 펼쳐진 동백나무 숲은 마치 자연이 겨울을 맞이하며 남겨둔 따뜻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동백꽃과 눈 덮인 풍경이 어우러진 이 장면은 겨울의 보길도를 그 어떤 계절보다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요함과 생동감이 공존하는 이 섬에서, 여러분들도 자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영감을 만나보세요.



* QR 정보 : (EBS) 자연의 삶이란..이벤트 바다로 가자 | 어부사시사 | 10 CUT 고전 ▲

어부사시사란?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는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시조 문학의 대가 윤선도(尹善道, 1587~1671)가 지은 연시조로, 총 40수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윤선도가 전남 완도의 보길도에서 은거하며 자연 속에서 느낀 사계절의 풍경과 어부의 일상을 노래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시조 문학의 백미로 평가받습니다. [출처 : 위키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길도 여행에서 윤선도의 시 속 계절을 따라 걷는 건 어떨까요? 단풍이 물든 가을의 세연지에서, 하얀 눈 속에 잠긴 겨울의 풍경까지, 모든 순간이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할 거예요. 당신은 어떤 계절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보길도의 풍경 속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당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세요.

“겨울의 고요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보길도 이야기의 시작, '청별' 버스정류장

보길도의 하루는 언제나 청별에서 시작해 청별에서 마무리됩니다. 섬 주민과 여행자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버스 장류장인 이곳은, 따뜻한 연결점이자 보길도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청별은 출발지이자 종점이라는 독특한 위치 덕분에 이곳을 지나지 않고는 보길도의 하루를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이곳에 모여 하루의 시작을 알리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녁이면 다시 이곳에 모여 하루 동안 겪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바람과 햇살 속에서 섬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청별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맞이하고 떠나보냅니다.



청별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다섯 대의 농어촌버스는 섬 구석 구석을 연결하며,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 교통 수단, 여행자들에게는 섬 곳곳을 탐험하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특히 모든 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버스들은 주민들의 생업을 돕기 위해 부지런히 출발하고, 오후가

되면 여행자들의 발길을 보길도의 주요 명소로 이끌며, 그곳에 담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이 작은 정류장은 단순히 버스가 머무르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청별은 섬 주민의 삶과 여행자의 여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보길도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모든 하루의 이야기를 품어주는 포근한 공간입니다.

“보길도의 풍경과 일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청별에서 출발 어떠신가요?”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보길도에서 키워져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

농작물

블루베리

7월~9월

해산물

전복

4월~5월, 10월

청각

8월~9월



완도전복은 이래서 좋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복은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다시마, 미역)만을 먹고 성장하므로 품질이 우수하며 육질이 연하고 부드럽고, 맛과 영양이 특별합니다.



“尾”

전복을 세는 단위 : 미(尾)

1kg에 몇 마리의 전복이 들어가는지를 의미합니다.
예) 7~8미 1kg- 7~8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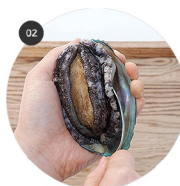
전복, 크다 vs작다?! 전복크기 및 추천용도

고급형		일반형	
특대전복 (마리당 100g 이상)	대전복 (마리당 90~70g 이상)	중전복 (마리당 60~40g 이상)	소전복 (마리당 30g 이상)
명절선물	어르신선물	가정용 요리	가정용 요리
이바지선물	환자/산모 보양식	탕, 찌개, 조림	전복장조림
고급회감	아기이유식	캠핑/니들이	라면전복
수출용	회, 죽, 찜, 구이		

전복손질과 보관법



부드러운 솔로 전복살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전복의 패각 안쪽에 숟가락을 넣어 껍질과 살을 분리합니다.



전복 이발을 제거합니다.



전복 내장(계우)까지 분리하면 손질이 마무리됩니다.



손질한 전복은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보관 시, 전복 내장을 제거한 후 랩으로 포장하여 냉동보관을 권장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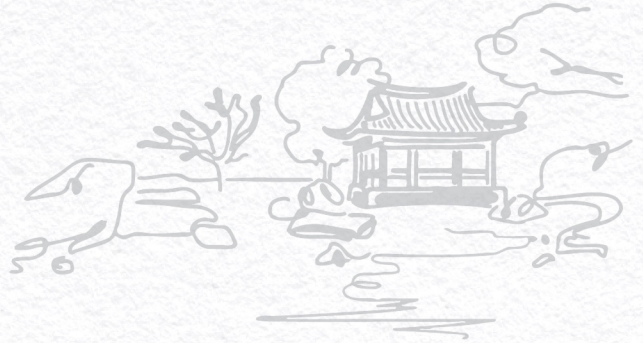
* 출처 : 완도군 홈페이지 > 완도소개 > 특산물 > 수산물 > 완도전복 (<https://www.wando.go.kr/wando/sub.cs?m=665>)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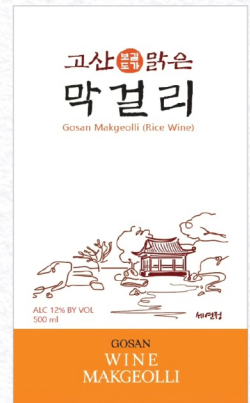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인터뷰 ①

박영수 보길도가 대표



#막걸리 한 잔에, 섬 문화의 맛을 빛다!



Q1.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와 함께 보길도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A1.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완도 보길도에서 전통주를 빚고 문화를 기획하는 '보길도가' 대표 박영수입니다.
보길도 섬에서 막걸리를 매개체로, 사람들과 문화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길도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문의 섬, 치유의 바다"입니다. 오기는 힘들지만, 오면 자연과 사람이
빛어낸 자유와 치유의 섬 속의 예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길도가 양조장은 보길도 섬에 술을 더하다는 의미의 술도가이며, 보길도집이라는의미이기도 하다.
옛부터마을의 양조장은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마을의 큰집이었다.

Q2. ‘보길씨막걸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막걸리의 특징과 매력은 무엇인가요?

A2. ‘보길씨막걸리’라는 이름은 보길도가 가진 서사와 자연, 문화를 담아내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빚는 사람(人)으로써 이곳에서는 ‘보길씨(甫吉氏)’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동시에 ‘보길 바다(甫吉海, Bogil Sea)’라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가 섬이잖아요? 주변이 모두 바닷물이죠. 저는 섬을 둘러싼 바닷물을 막걸리라고 생각하며, 막걸리가 섬과 육지를 잇는 매개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섬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막걸리를 통해 보길도를 찾는 이들에게 이곳만의 매력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막걸리는 술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처음 막걸리를 만들었을 때부터 단순히 술을 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섬의 문화를 빚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히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우리 전통과 섬의 서사를 담고 있는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했어요.

보길도 막걸리는 섬에서 나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자연 발효 방식을 통해 만들어져 깊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이 막걸리 한 잔에는 섬의 자연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우리 섬의 정체성과 자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보길씨막걸리’ 외에 ‘고산맑은 막걸리’라는 와인 막걸리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고산 선생의 정신을 담아 보길도를 더욱 널리 알리게 될 겁니다. 막걸리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은 곧 보길도를 한 잔에 담아 마시는 겁니다.



▲ 보길씨 막걸리가 탄생하는 보길도가 양조장



▲ ‘동백꽃 다시 피어나다’ 공연 포스터



▲ 세연정에서 만나는 예술의 울림

Q3. 보길도 주민들에게 막걸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A3. 보길도 주민들은 처음에는 막걸리를 단순히 마시는 술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걸리를 통해 섬의 이야기를 나누고, 육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술이라고 읽지만, 예술이라고 마십니다."라는 말처럼 막걸리는 단순히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예술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복 작업 후 주민들이 한 잔의 막걸리를 나누며 나누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예술이 됩니다. 더욱이 동백꽃이 피는 겨울, 세연정에서 거문고 연주를 감상한 후 갓 잡은 삼치회와 함께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은 보길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Q4. 보길도에서 문화 예술을 시작한 이유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A4. 보길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물리적 한계로 섬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을 초대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섬에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예술가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저는 우리 섬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를 예술가들에게 소개하며, 이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작업하거나 공연하며, 섬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예컨대, 거문고 연주자가 고산 윤선도의 정원 '세연정'에서 연주를 하면, 460년 전 고산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연정에서 연회를 베풀고 시조를 읊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예송리 갯돌 해변에서 자신의 시를 떠올리고, 연주자는 잃어버린 음표를 찾아갑니다. 섬에 예술을 접목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사람, 문화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이 자연을 침해하거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섬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섬에 새로운 삶의 공기를 불어넣고,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자연과 더불어 문화 예술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섬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할 때 중점은?

A5.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관광객들도 섬의 문화를 조금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노력합니다. 섬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감동하는 순간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우리 섬이 이렇게 특별한 곳이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낄 때 그 보람은 더욱 큼니다. 또한, 막걸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한 잔의 술이지만, 그 안에는 자연, 시간,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나눌수록 그 의미가 커지고, 문화를 나누고 공동체를 만들게 해줍니다.



▲ 보길도가에서 출시된 '고산맘은막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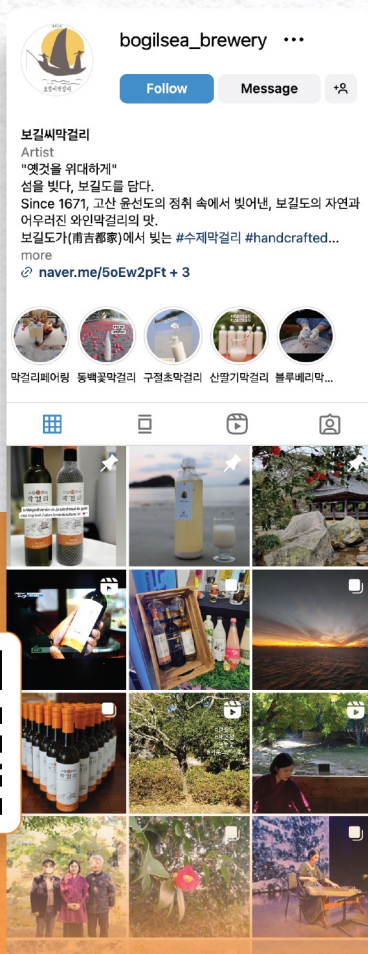
세연정을 품고 있는 동백꽃 ▶



Q6. 보길도에서 앞으로 시도하고 싶은 것은?

A6. 보길도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건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 우리 섬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맛보는 경험입니다. 특히 '세연정'의 정원을 보고 난 후 막걸리를 마시면 섬이 주는 고요함과 생명력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보길도를 '동백의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보길도는 난대림 식생물이 가장 많은 섬으로, 300~400년 된 자연 동백나무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입니다. 고산 선생님은 '원림'을 만들고자 하셨던 게 아니라 '정원'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 정원의 중심에 동백꽃이 있었습니다. 보길도를 동백의 정원으로 만들어 세계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섬과 막걸리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문화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길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동백꽃 축제'를 통해 보길도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보길도가 소식
보러가기



인터뷰를 마치고 남은 잔잔한 여운



보길도에서 만난 박영수님과의 대화는 마치 한 잔의 막걸리를 음미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부드럽지만 깊은 여운이 남는 그 순간, 막걸리 한 잔에 담긴 섬의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보길씨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보길도의 숨결과 시간을 담은 특별한 매개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막걸리 한 잔에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섬 사람들의 삶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섬의 문화가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방문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모습에서 보길도의 진정한 가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보길도의 소식을 매일매일 올려 주는 박영수님 응원합니다!

인터뷰 ②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겸 소설가

#섬에서 펼쳐지는 문학의 여정

Q1. 보길도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1. 2010년 정년퇴임 후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환경에서 글을 쓰며 내면을 성찰하고 싶었습니다. 보길도는 제가 찾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바다, 그리고 고요함이 이곳에 머물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섬 생활이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섬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그분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삶의 방식이 오히려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섬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제가 글을 쓰고 영감을 얻으며 삶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Q2. 소설가로서의 활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2. 젊은 시절, 기자가 되어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학생운동에 깊이 연루되며 그 꿈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언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며 제가 가진 생각과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퇴임 후 보길도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제 꿈을 다시 껴낼 수 있었습니다. 첫 장편소설 담징은 신라 화가이자 스님인 '담징'의 예술적 삶과 인간적 고뇌를 다룬 작품으로, 제가 그동안 품어왔던 창작의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눈 속에 핀 꽃'에서는 젊은 시절 대학 입학부터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청춘의 고뇌와 사랑, 시대적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주인공 영운과 윤희를 통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청춘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최근작 '등대'는 동학의 개벽 사상을 중심으로 1909년 완도 소안도에서 일어난 '등대 습격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역사를 재조명하며 동학의 정신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작 소개



- 1 담징 | 신라 화가이자 스님인 담징의 예술적 삶과 인간적 고뇌를 그린 첫 장편소설. (발행 연도: 2013년)
- 2 눈 속에 핀 꽃 | 자전적 소설로, 대학 시절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시대적 고민을 담아낸 작품. (발행 연도: 2018년)
- 3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 | 〈친당과 저옥〉, 〈요산요수〉, 〈말할 기회〉, 〈크로마이트〉, 〈일할 기회〉, 〈보성소리〉 등 주옥같은 작품들이 수록된 소설집. (발행 연도: 2021년)
- 4 등대 | 1909년 소안도의 '등대 습격 사건'을 바탕으로 동학의 정신과 역사를 재조명한 소설. (발행 연도: 2024년)



▲ 동천석실 앞에서 보길도의 역사를 설명하는 김민환 교수님

Q4. 보길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4. 보길도는 자연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섬입니다. 윤선도의 흔적이 담긴 명소와 섬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는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과 고요함이 이곳엔 가득하죠. 이 섬은 제게 단순한 집이 아닌, 창작의 원천이자 삶의 쉼터입니다.

Q3. 최근의 작품 활동과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3. 최근작 '등대'는 1909년 전남 소안도에서 발생한 '등대 습격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등대 건설이 생존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저항했으며, 이는 단순한 반발을 넘어 동학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학의 정신은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사상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동학의 철학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자연과 인간,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꿨던 메시지가 현재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집필 과정에서 소안도를 직접 답사하며 주민들의 기록과 이야기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소설적 상상력을 더해 인간적인 갈등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선택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저는 동학의 개벽 사상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역사를 문학적으로 재조명하며, 보길도의 자연과 역사가 주는 영감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싶습니다.

Q5. 보길도 일상에 특별한 루틴이 있으신가요?

A5. 보길도에서의 하루는 제게 매우 특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당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추자도까지 보이는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 장관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제가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 뒤 섬을 걷는 것으로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합니다. 걷는 동안 작품에 대해 구상하거나 이미 집필 중인 글을 떠올리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건강을 위해 만 보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며 걷고, 때로는 길가에서 마주치는 꽃이나 나무를 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특히 영감을 얻고 싶을 때는 동천석실로 향합니다. 이곳은 고산 윤선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명소로, 자연과 역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동천석실에서 한참을 앉아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글을 쓰고 싶은 열정이 다시 솟아 오르곤 합니다.



김민환 교수님과 동천석실을 오르는 길 ▲

인터뷰를 마치고 남은 잔잔한 여운

김민환 교수님과의 대화는 보길도의 섬처럼 잔잔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가 보길도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일상에서 시작해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창작과 사색을 실현하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보길도는 그에게 글을 쓰고 영감을 얻는 창작의 무대이자 삶의 쉼터입니다. 그의 작품은 동학의 정신과 소안도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사람과 자연,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삶의 가치를 전합니다. 조용한 섬 생활 속에서 그는 소소한 일상마저도 글의 한 장면으로 승화시키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그의 문학은 자연의 위로와 역사의 숨결을 담아 독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소설가 김민환은 앞으로도 보길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쓰며 섬과 함께 살아가는 문학적 여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의 문학 세계가 널리 퍼지고, 보길도의 아름다움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 집 마당에서 앞섬 풍경을 설명하는 김민환 교수님

인터뷰 ③

김전담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섬의 숨결을 전하는 메신저, 보길도의 시간을 걷다

Q1. 해설사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김전담입니다.
보길도와 노화도에서 생활한 지 벌써 16년이 되었네요.
평소에는 노화도에서 전복 양식을 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고향을 위해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라남도청에 문의하던 중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수료 과정을 마친
후 해설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길도를 방문
하는 분들에게 윤선도 선생님과 이 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길도의 아름다움과 숨겨진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며, 저 자신도 이 일을 통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 세연지의 '오입삼출' 돌다리 풍경

Q2. 윤선도 원림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인가요?

A2. 윤선도 원림은 대한민국 명승 제34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깊은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을 해설할 때, 윤선도 선생님의 삶과 철학을 사실에 기반하여 전하려 노력합니다. 이 원림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연정의 설계와 주변 자연의 조화는 단순히 보기 좋은 공간을 넘어, 자연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자 한 선생님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적 사실을 더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윤선도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십니다. 저는 이러한 소통을 통해, 방문객들이 윤선도 원림에서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윤선도 원림 해설을 시작하는 김전담 님

Q3.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A3. 몇 년 전, 대전 점자문화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 여행객들과 동행하신 분들이 보길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총 12분이 함께 하셨는데,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길도의 이야기를 느끼려 노력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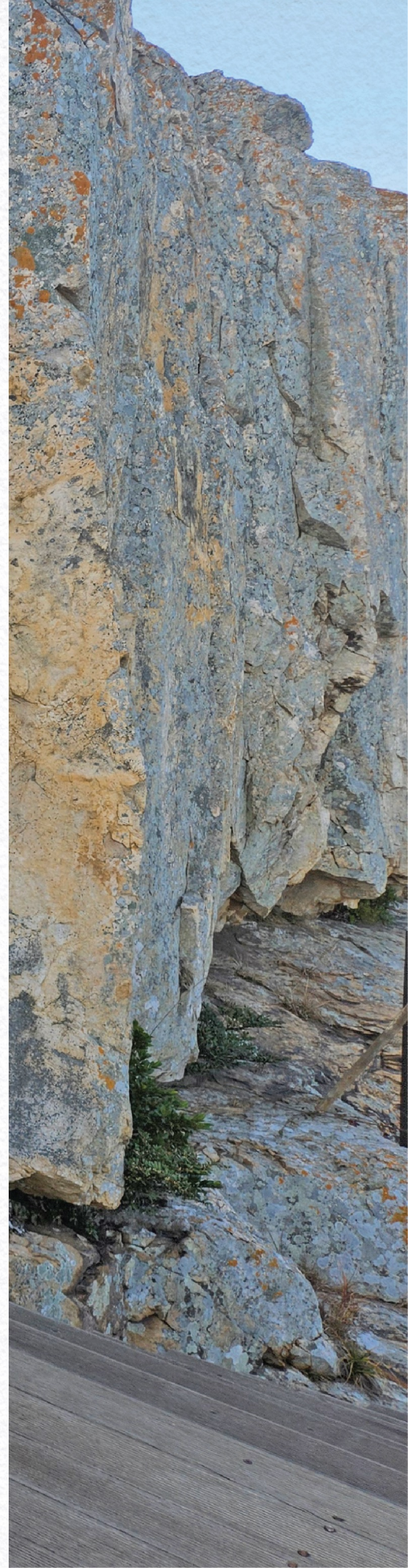
특히 한 분이 동천석실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길이 험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함께 천천히 오르며 안내를 도왔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후 그분이 보여주신 환한 미소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손끝으로 낙서재와 세연정의 구조를 더듬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경험은 보길도의 자연과 윤선도 선생님의 철학이 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일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4. 윤선도 원림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나요?

A4. 저는 윤선도 원림에서 세연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연못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당시의 과학적 설계와 윤선도 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공간입니다. 세연지는 물이 세 번 정수된 후 연못으로 들어오게 설계되었으며, 해수담의 ‘오입삼출’ 구조를 통해 부유물은 걸러지고 깨끗한 물만 남게 됩니다. 이 혁신적인 설계는 자연과 과학이 조화를 이룬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연지는 연못을 둘러싼 산세와 조경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윤선도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며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 철학이 세연지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못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곳임을 방문객들에게 강조합니다.



▲ 연꽃이 피어오르는 보길도 부용동

Q5. 고산 윤선도 선생님과 보길도의 특별한 인연은 무엇인가요?

A5. 윤선도는 병자호란 당시 봉림대군의 스승으로서 강화도에서 대군을 구하려다 실패한 경험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제주도로 은거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항해하던 중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곳의 산세와 풍경에 매료되어 부용동(芙蓉洞)이라는 이름을 짓고 정착하였습니다.

부용동은 연꽃이 피어오르는 계곡이라는 뜻으로, 보길도의 산세가 마치 연꽃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이후 윤선도는 이곳에서 자연과 문학, 그리고 철학을 바탕으로 세연지와 낙서재 같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보길도는 그에게 단순한 은거지가 아닌, 자신의 철학과 예술을 구현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Q6. 해설사님께 보길도란 어떤 곳인가요?

A6. 보길도는 제게 단순히 해설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섬은 윤선도 선생님의 철학과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제가 전하는 해설이 방문객들에게 보길도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더 깊이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세연지와 윤선도 원림에 담긴 이야기가 방문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다시 이곳을 찾고 싶게 만드는 특별한 기억이 되길 희망합니다.

보길도는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철학이 어우러진 소중한 공간이며, 저에게는 고향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삶의 일부입니다.

△ 인터뷰를 마치고 남은 잔잔한 여운

보길도에서 김건담님을 만난 시간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섬과 역사를 새롭게 마주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시는 해설사님의 모습은 보길도의 시간과 숨결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했습니다. 윤선도 원림의 작은 돌 하나, 세연지의 물결에서도 자연과 철학을 향한 애정이 배어 나왔습니다. 세연지를 걸으며 들었던 해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고산 윤선도가 보길도에서 완성한 철학과 자연 사랑을 생생히 느끼게 했습니다. 병자호란의 아픔을 품고 도착한 이곳에서 고산이 절제된 해수담과 세연지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설사님은 보길도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맞추어 전달하며 섬의 가치를 깊이 심어주는 분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 여행객들과의 일화처럼, 누구나 이곳에서 자신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은 인상 깊었습니다. 보길도와 윤선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섬이 가진 역사와 아름다움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해설사님과의 대화는 보길도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고, 섬을 지켜온 시간과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김건담 해설사님을 통해 보길도는 자연과 철학이 어우러진 공간이자, 사람과 이야기가 이어지는 특별한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 보길도의 가치를 전하는 김건담 님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전남 섬 여행 날씨 확인
섬 여행 전 날씨 확인은 필수겠죠?



완도 보길도 투어 가이드



▲ 보길도 관광 안내도 (출처: 완도문화관광 <https://wando.go.kr/tour>)

1 보길도 기본 현황 *2024년 11월 기준

가구·인구	1,265가구 · 2,533명
면적·해안선 길이	32.98km ² · 59.32km
주요 관공서	면사무소, 보건진료소, 농협, 수협, 우체국, 보길파출소, 보길초등학교, 보길동초등학교, 보길중학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 보길도 여객선 운항정보

* 여객선을 타고 노화도까지 이동하신 후 '보길대교'를 건너면 보길도를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노화도에서 보길도는 자차로 이동하거나 버스와 택시로 이동 가능합니다.

1. 완도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 완도(화흥포) → 노화(동천) | 동절기 : 10.1. ~ 2.28 운항

항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노화(동천)	출발	07:20	08:20	0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17:20	20:00
완도(화흥포)	출발	07:00	07:50	08:50	09:50	10:50	11:50	12:50	13:50	16:50	15:50	17:10	21:00

· 완도 화흥포항 | 전남 완도군 화흥포길 242
· 문익 | 소안농협 (061-550-1604)
화흥포 매표소 (061-555-1010)
동천 매표소 (061-553-5635)
· 소요시간 | 40분
· 운임 | 화흥포 → 노화(동천) (성인 1인 6,500원)
*차량 선적시 매표 먼저 진행(승용기준 18,000원)

2. 해남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 땅끝항(해남) → 산양진(노화도) | 동절기 : 10.1. ~ 2.28 운항

항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땅끝(해남)	출발	07:00	07:30	08:00	08:30	0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산양진(노화)	출발	07:00	07:30	08:00	08:30	0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항차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땅끝(해남)	출발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6:50	17:20	17:40	18:00
산양진(노화)	출발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6:50	17:20	17:40	18:00

3 노화도에서 보길도로 이동하는 교통편

* 여객선을 타고 노화도까지 이동하신 후 '보길대교'를 건너면 보길도를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노화도에서 보길도는 자차로 이동하거나 버스와 택시로 이동 가능합니다.

버스 안내

노화도 각 항(산양,동천)에서 버스를 탑승할 시 이목항에서 내려 보길도(청별항)로 가는 버스를 갈아탄 후

청별 마을 농어촌버스를 이용해주세요. *보길여객 | 061-552-1935

노화도 (산양, 동천항) → 이목항 버스 정보			이목항 → 청별항 버스 정보	
땅끝항 출발	산양항 → 이목항	401번(평일 3회)	이목항 → 청별항	511번(평일 12회), 504번(평일 5회), 406번(평일 4회), 505번(평일 2회)
화흥포항 출발	동천항 → 이목항	407번(평일 1회), 411번(평일 1회)		

청별 마을 출발 시간표	
06:50(첫차), 07:20, 07:30, 07:40, 08:15, 09:10, 09:55, 10:10, 10:20, 11:00, 11:30, 11:50, 12:25, 13:50, 14:20, 16:00, 16:30(막차)	

· 완도 화흥포항 | 전남 완도군 화흥포길 242
· 문익 | 해광운수 (061-555-9088)
노화농협 (061-553-5388-9)
땅끝 매표소 (061-535-4268)
산양 매표소 (061-535-4268)
· 소요시간 | 40분
· 운임 | 땅끝항 → 산양진항(노화) (성인 1인 7,150원)
*차량 선적시 매표 먼저 진행(승용기준 18,000원)

택시 안내

*보길택시 | 061-553-8876 개인택시 | 061-553-6262, 061-553-6353

4 보길도 숙박 정보

No.	마을	상호명	주소	연락처
01	예송리	낙원펜션	예송로 262	061-554-9624
02		풀하우스펜션	예송1길 29	010-4065-7455
03		물안개펜션	보길동로 160	010-3644-1358
04		블랙스톤펜션	예송로 264-10	061-554-1009
05		해돋이펜션	예송로 258	061-553-6425
06		황토한옥펜션	예송로 264-21	061-553-6370
07		솔밭펜션	보길동로 382	010-3193-0900
08	중통리	해그림펜션	보길동로 367	061-553-7083
09		보금자리펜션	청별길 12	010-5358-6217
10	부항리	세연정모텔	청별길 30-1	010-8666-6782
11		힐링모텔	보길동로 20	061-553-3361
12		공룡알펜션	보길로 1172-33	010-8208-7200
13	보옥리	뽕죽산펜션	보길로 1206-41	061-552-3941
14		서울별장펜션	보길로 931번길 70	061-552-0436

5 보길도 식당 정보

No.	마을	상호명	주소	연락처
01	부항리	나무숲	청별길 26	061-555-2776
02		돈애랑장터순대국감자탕	청별길 12	061-552-2019
03		바다양푼이동태탕	보길동로19번길 4	061-555-5270
04		바위섬	보길동로20번길 28	061-555-5612
05		보리떡다섯개와물고기두마리	청별길 18-1	061-552-9770
06		비비규율리브치킨	청별길 10	061-555-1767
07		뽕죽산펜션식당	보길로 1206-41	061-552-3941
08		세연면옥	부항길 66	061-552-5533
09		세연정	보길동로20번길 30-1	061-553-6782
10		섬터가든	청별길 38-1	061-553-6419
11		우리식당	청별길 20	061-553-5333
12		청명회관	청별길 36	061-554-6292
13		청별로숯불	청별길 8-1	061-552-9996
14		삼거리보길식당	보길로 51	061-553-3362
15		섬비헬카페	부항길 55	061-554-8915
16	예송리	미리네	예송3길 3	061-553-6429
17	보옥리	공룡알펜션횃집	보길로 1172-33	061-555-5144



보길도의 자연과 윤선도의 철학속으로

#섬에 한국 전통 정원?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오랜 역사를 품은 보길도는 조선 시대의 고산
윤선도가 자연과 철학, 예술을 결합해 만든
한국 전통 정원의 진수와 사색의 공간이 공존
하는 특별한 섬입니다. 세연정과 동천석실, 이 두
가지 명소에서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세요.

보길 윤선도 원림 관람 안내



- 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항길 57
- 이용 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3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입장료
 - 개인 | 성인 3,000원, 청소년 및 군인 2,500원, 어린이 2,000원
 - 단체(20인 이상) | 성인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어린이 1,500원
 - 무료 | 완도군민, 65세 이상, 6세 이하, 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제시)
- 문의 및 안내 | 세연정 매표소 061-550-6637



▲자연과 과학을 결합한 완벽한 정원, '세연정'과 '세연지'

물과 정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세연지는
조선 시대의 과학적 설계와 철학적 깊이를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자연 속에서 철학과 예술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연정 랜선 여행하기 ▲

▲과학적 설계와 철학적 깊이가 돋보이는 세연정



▲ 고요한 바위 속에 자리한 동천석실의 풍경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 > 대한민국 구석구석

#고요한 바위 속 철학의 공간, 동천석실

동천석실은 고요한 바위 속 은둔의 장소로, 윤선도의 철학과 사색이 녹아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연의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함이 특징입니다. 윤선도는 이곳에서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바위와 주변 환경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동천석실은 고요한 산세와 바다를 아우르는 풍경을 자랑합니다.

동천석실로 오르는 길은 오래된 나무들이 터널처럼 이어져 있어 마치 자연의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을 줍니다. 길가에는 여행객들이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탑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여정을 신비롭고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길가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는 동천석실로 향하는 여정을 더욱 고요하고 신비롭게 만듭니다.

동천석실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산세가 품고 있는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윤선도의 철학적 공간인 이곳은 보길도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동천석실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함과 따뜻함은 현대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 동천석실로 오르는 길에서 만난 여행객의 돌탑

동천석실 앞에서 바라보이는 부용동 전경 ▼



▲ 동천석실 랜선 여행하기

“이 특별한 곳, 여러분도 바쁜 일상속 잠시 쉬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발길 닿는 순간,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우암 송시열의 흔적이 담긴 글썽바위 앞에 서면 조선시대의 시간이 흐르는 듯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공룡알해변의 둥글고 매끄러운 돌들이 빚어내는 신비로운 풍경은 자연의 위대함을 새롭게 느끼게 합니다. 망끝전망대에 올라 끝없이 이어지는 바다와 하늘의 장엄함을 마주하는 순간, 보길도에서의 여행은 과거와 현재,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는 진정한 여행의 무대입니다.

#우암 송시열 글썽바위

역사의 글씨를 따라 걷다 우암 송시열 글썽바위

보길도에서 소안도가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글썽바위는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흔적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는 1689년 숙종 시기 왕세자 책봉 문제로 관직에서 쫓겨나 제주도로 유배를 가던 중, 완도 보길도 백도리 해안에 머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왕에 대한 충정을 시문으로 남겼습니다.

글썽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오언절구(五言絶句)가 새겨져 있습니다.

八十三歲翁 (팔십삼세옹) 蒼波萬里中 (창파만리중)
一言胡大罪 (일언호대죄) 三黜亦云窮 (삼축역운궁)
北極空瞻日 (북극공첨일) 南溟但信風 (남명단신평)
貂裘舊恩在 (초구구은재) 感激泣孤衷 (감격읍고충)

“여든셋 늙은 몸이 거친 만리 바다 한가운데 있구나.
한마디 말이 어찌 그리 큰 죄가 되어 세 번이나 쫓겨나니 신세가 궁하구나.
북녘 하늘의 임금을 우러르며 남쪽 바다에서는 오직 바람만 믿을 뿐이네.
담비 갖옷에 서린 옛 은혜를 감격하여 외로운 마음에 눈물 흘리네.”

이 시문은 송시열의 고난 속에서도 충성과 유학자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글썽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그의 학문적 깊이와 충절을 보여주는 유산이며, 보길도의 역사적 깊이를 상징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날 이 바위는 고요한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방문자들에게 그 시대의 정서와 송시열의 사색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의 감정과 고뇌를 잠시나마 공유할 수 있는 이곳은 보길도를 찾는 이들에게 역사와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
고요한 자연 속에 자리잡은
우암 송시열 글썽바위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 대한민국 구석구석

#보옥리 공룡알 해변 공룡의 알, 바다에 깨어나다

보길도 보옥리에 위치한 공룡알해변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풍경으로, 크고 둥근 갯돌들이 해변을 가득 메워 마치 공룡의 알을 연상시킵니다. 이곳은 '보래기갯돌밭'으로도 불리며, 보죽산(보죽산) 아래 펼쳐진 해변과 동백숲이 어우러져 자연 속 평온함을 선사 합니다.

갯돌이 파도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내는 이곳에서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갯돌 사이를 걸으며 공룡시대의 신비로운 상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부사시사 명상길'이 조성되어 있어 해변에서 예송리까지 이어지는 약 5.2km의 돌레 길을 따라 걸으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내용 출처: 한국관광공사 - 대한민국 구석구석

편의시설이 많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이곳은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숨은 명소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룡알 해변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망끝전망대 세상의 끝에서 맞이하는 시작

보길도의 가장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망끝전망대는 이름 그대로 세상의 끝에서 있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제주도 산신이 지리산 산신의 초청을 받아 가던 중 보길도의 달빛에 매료되어 머물렀다는 전설이 깃든 장소로, 자연과 전설이 어우러진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서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수평선이 눈앞에 펼쳐지며, 추자도와 옥매도, 가도, 상도 등 다도해의 섬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맑은 날에는 멀리 제주도까지도 보이는 광활한 풍경이 감동을 자아내며, 서해로 붉게 물드는 황홀한 일몰은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합니다.

망끝전망대는 보길도의 숨은 보석 같은 장소로, 자연과 하나 되어 여유를 찾고 새로운 꿈을 그리기에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 보죽산을 바라보고 있는 공룡알해변 갯돌



▲ 끝없이 푸른 바다와 하늘 볼 수 있는 망끝전망대

보길도는 자연과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섬입니다. 우암 송시열의 글썽 바위에서 느끼는 사색의 깊이, 공룡알 해변에서 발견하는 자연의 신비, 그리고 망끝전망대에서 만나는 끝없이 펼쳐진 풍경은 모두 보길도가 선사하는 잊지 못할 순간들입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 자연과 사람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만나 보세요.

보길도의 시간 속에서
당신만의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소통과 협력으로 빛난 성과, 2024 가고 싶은 섬 민관합동워크숍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여수 JCS호텔에서 2024년 가고 싶은 섬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가고 싶은 섬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주민대표들은 영상을 통해 마음을 전하며 워크숍에 대한 응원과 연대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행사는 섬 발전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민들의 노고를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총 80시간을 이수한 섬코디네이터에게 자격증이 수여되었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격려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열린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는 전남 가고 싶은 섬이 선정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주민들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군별 추진 현황 발표에서는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섬 가꾸기에 힘써온 주민들과 최근 선정되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각 섬의 사업 성과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노하우와 새로운 시도를 공유하며 섬 가꾸기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진행된 포토테라피 프로그램에서는 포토테라피스트 백승휴 작가가 전체 참가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공감과 연결의 장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고 함께한 순간의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어, 이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 2024년 가고 싶은 섬 민·관 합동 워크숍 단체 사진



▲ 섬 발전 유공자 표창



▲ 백승휴 작가와 함께한 포토테라피 이벤트



▲ 시·군별 추진 현황 발표



▲ 모세환 대표의 가고 싶은 섬 사업 방향 제안

둘째 날 진행된 섬코디네이터 성과공유회는 우수활동 섬코디네이터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며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섬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40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고흥 연흥도와 신안 선도의 섬코디네이터가 자신의 활동사례를 발표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활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워크숍의 마지막은 여수 낭도에서 진행된 쓰담견기 활동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섬의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탐방로를 정비하고, 섬을 더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걸어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다짐과 협력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섬의 내일을 그려가는 따뜻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섬 코디네이터 이수증 수료 기념하며



▲ 박효준 다문커뮤니케이션대표와 함께한 토크 콘서트



▲ 여수 낭도 쓰담견기 활동 현장

‘시옷’ 구독자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 방법

- 참여 기간 | 2025년 1월 19일(일요일) 까지
- 참여 방법 | QR 코드를 스캔하여 의견 작성

이벤트 참여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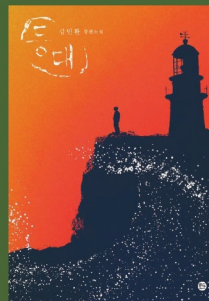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옷’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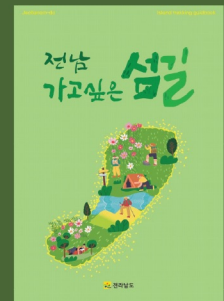
참여 조건

- ‘시옷’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품 안내



김민환 장편소설 등대 (3명)
작가의 친필 싸인이 담긴 특별한 소장본



전남 가고싶은 섬길 (20명)
전남 52개 섬길 여행의 길잡이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